침체 늪 빠진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 92%…입주율은 43.7% '반토막'
나주시 나홀로 지원 한계…광주시·전남도·정부 함께 나서야

조성 11년차를 맞은 빛가람혁신도시가 거주 인구 감소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 조차 '반토막'이 나는 등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전 등 에너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정부 지원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준공 및 입주율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6월 기준 3만 9210명으로 집계됐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며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고, 올 1월까지도 4만 38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2월(3만 9577명), 4월(3만 9212명), 5월(3만 9204명) 등 반년만에 1000명 이상 감소했다.

도시 활성화의 핵심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률은 92.1%에 이르는 반면 준공 및 입주율은 43.7%로 집계했다. 클러스터 부지 대부분이 분양을 마쳤지만, 전체 분양 부지의 절반 이하만 입주한 셈이다.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의 입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로는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장기화가 꼽힌다.

나주시 관계자는 "클러스터 내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최근 3~4년 간 지속된 '부동산 한파'로 인해 삽조차 뜨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이후 클러스터 내 신규 준공 건은 공공기관 측에서 진행했던 연구원 용도 건물 1개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인구 목표 달성 및 클러스터 발전, 도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혁신도시 발전기금 발굴' 등이 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및 신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 분양 대출금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매 분기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나주시가 클러스터 입주기업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년 사업 신청 업체가 늘어나면서 지원금 규모도 2022년 10억 4000만원, 2023년 20억 3000만원, 2024년 20억 6000만원, 2025년 22억원 등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에너지·정보통신·농생명·문화예술 등 4개 분야에서 346개 업체가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들로, 센터별로 '스마트파크' 251개, '게토' 33개, 'K1' 27개, '토담' 21개, '이노파크16' 14개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입주 업체들 사이에선 이 같은 나주시 차원의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 장기적인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직원들이 나주시 소재 한 밭에서 봄무 수확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

aT, 봄무 7500t 수매…수급안정 나선다

10년 내 수매 물량 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여름철 무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무 7500 t 을 수매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부진 등으로 채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무 가격은 6월에는 평년의 80~110%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7~9월에는 폭염 및 폭우로 매년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aT는 여름철 무 수급 안정을 위해 봄무 7500 t 을 먼저 수매해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수매 물량 4500 t 보다도 1.5배 많은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추진된 봄·여름무 수급안정 대책 물량 중 최대 규모다.

더불어 올해부터 배추와 무 도매시장 출하 범위를 가락시장 중심에서 전국 주요 도매시장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가격 불균형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배추와 무는 국민들의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식재료로 꼽힌다"며 "먼저 비축해 적절한 시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4일까지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프에는 대학생 봉사단 2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친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회차를 맞았다. 캠프는 대학생들이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학생과 지역 주민 간 교류 촉진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인의 전공과 특기에 맞춰 의료활동, 마을벽화 그리기, 이발·미용 활동, 안경 맞추기, 전기안전점검, 아동교육, 마을 소통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 이번 캠프에는 대학생 봉사단 외 하동군 옥종면·화개면 의용소방대, 봉사단체 '광양만 사람들', 화개면 주민자치위원회, 농촌체험휴양마을 '의신베어빌리지', '모암마을' 등 여러 기관 및 단체가 동참할 계획이다.

김영배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이 대학생들에게는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외된 농촌지역에는 나눔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 봉사활동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5년간 전국 4670개 마을에 거주하는 28만여 명의 주민이 재능나눔 혜택을 받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7월 인권교육 '찾아가는 윤만추 클래스' 운영

한전KPS는 "7월 한 달간 '찾아가는 윤만추 클래스 시즌3'을 전국 6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윤만추 클래스는 '윤리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교육'의 줄임말로, 임직원의 윤리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년째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윤리·인권 공감대 형성 및 한전KPS의 인권정책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다.

올해는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관부서가 집중관리 사업장을 선정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소통교육 및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파견교육을 실시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직원 행동수칙 등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소통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교육 과정에서 모니터링 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 사례는 후속 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고객 편의성 강화…한전,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13일까지 커피 쿠폰 제공 이벤트

한국전력공사(한전)은 "한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리뉴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0년 만에 단행된 홈페이지 개편으로 이용자 입장을 고려했고, 모바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 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로 설계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한전의 다양한 에너지 사업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전력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이용자를 위한 영문 콘텐츠 대폭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기능 도입 등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통합ID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는 한 개의 ID로 한전 홈페이지, 한전ON,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등 한전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다양한 로그인 간편인증 시스템도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한전은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오는 13일까지 고객 만족도 조사, 퀴즈, SNS 공유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박종운 한전 ICT 기획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과 신사업 정보 등을 선보이는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